

축 산 관 측

닭고기가격 약세 예상

— 계란, 타육가공품 대체로 소비 줄어들어 —

(축협중앙회 조사부)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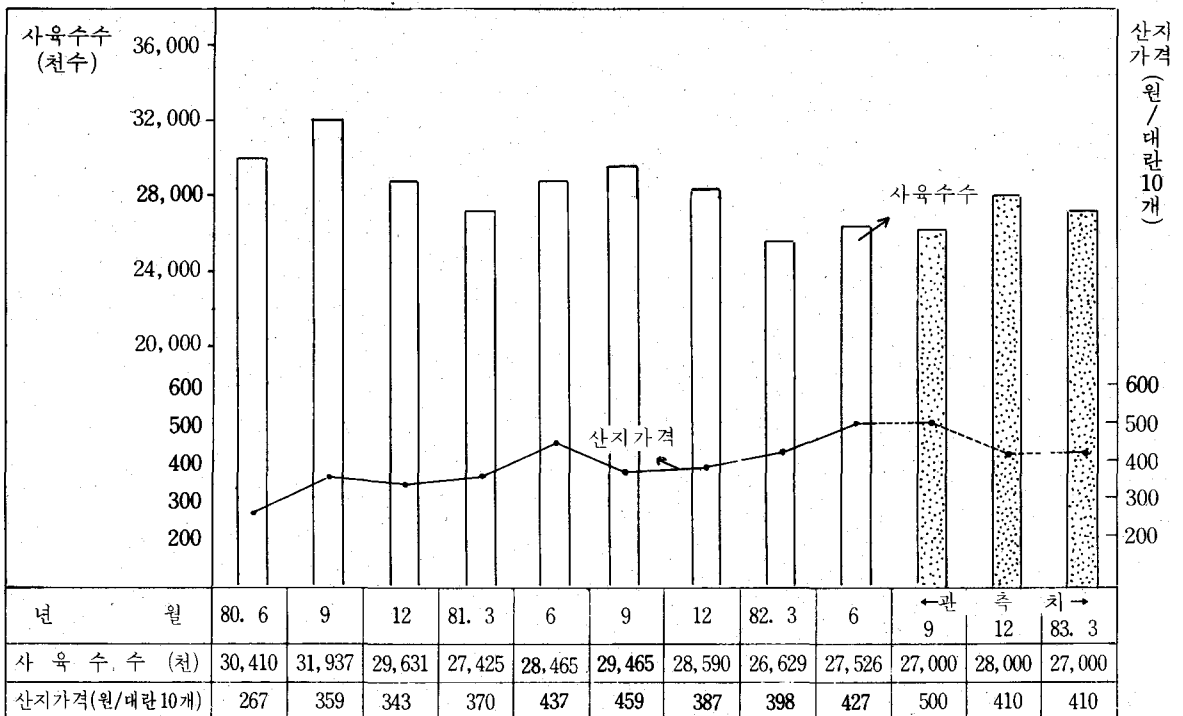
■사육전망

'80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채란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산란계 마리수는 '81년 9월이후 금년 3월까지 감소현상을 보였다.

6 월의 산란계 마리수는 2천7백53만 수로 3월보다 3%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봄철 전염성후두기관염에 의한 폐사수보다 초생추 입식 마리수가 약간 많았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전염성 후두기관염의 발생초기에는 많은 산란계가 죽어 마리수가 감소되었으나 최근에는

산란계 사육수수와 가격전망



예방백신 및 대중요법이 개발되었고, 산란용 사료공급량과 초생추 출하량을 감안하면 산란계 마리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9월에는 2천7백만수, 12월에는 2천8백만수 내년 3월에는 2천7백만수 정도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수급 및 가격전망

산란계의 사육마리수 감소로 작년보다 다소 회복세를 보여 5~7월은 생산비 수준을 보였다. 8월에는 방학기와 닭고기의 성수기로서 계란가격은 다소 하락세를 띄었으나 추석을 전후한 9~10월은 성수기인데다가 여름철 노계 도태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가 예상되어 난가는 생산비(434원/10개) 수준을 약간 상회할 듯하다. 그후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같은 난가가 작년보다 다소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 산란계 수수가 과다한 점도 있

겠으나 최근 햄, 소세지 등 새로운 육가공품이 개발되어 계란소비가 육가공품으로 대체되어가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육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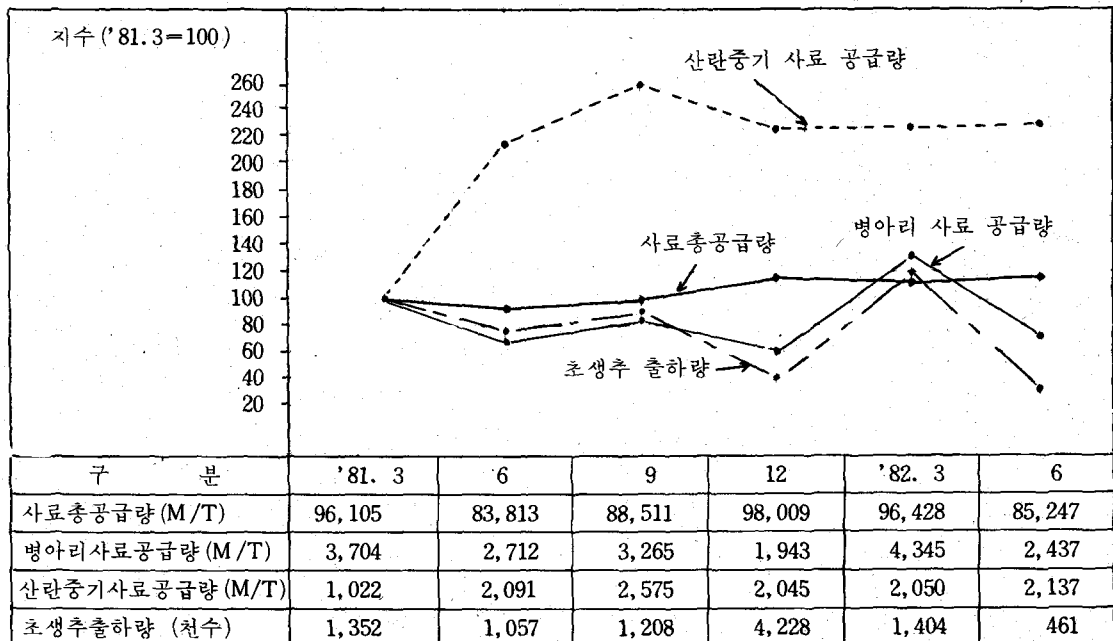
■사육전망

육계마리수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여 6월 수수가 항상 많음을 보여왔는데 금년 6월에는 예년에 없는 증가율을 보여 2천6백40만수가 되었다. 이는 3월보다 91%가 증가된 것이며 작년동기보다는 16%나 증가된 수준이다.

그러나 9월이후 12월까지의 계절적인 수요 감소에 따라 과거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어 9월에는 2천1백만수, 12월에는 1천4백만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봄철은 소풍철의 수요를 겨냥한 병아리 입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란계 수수 관련요인 변동지수





■수급 및 가격전망

작년 9월의 육계수수 과다로 10월 이후 육계 가격은 대폭 하락하여 불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하여 그후 사육수수 감소에 따른 출하물량이 없어 금년초부터 생산비 수준을 상회하는 좋은 값이 4월중순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4월말 이후에는 약세를 띄었는데 이는 호황에 따른 과다사육과 전염성 후두기관염

발생초기의 방매 현상으로 풀이된다.

요즈음 전염성 후두기관염의 예방이 가능하고 또한 전염속도가 느리며 어린병아리에는 발생이 적다는 점과 면역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상에 차질이 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8월의 육계가격은 6월 수수의 과다와 산란용 노계도대 등 물량증가로 큰 폭의 상승이 없이 생산비(923원/kg)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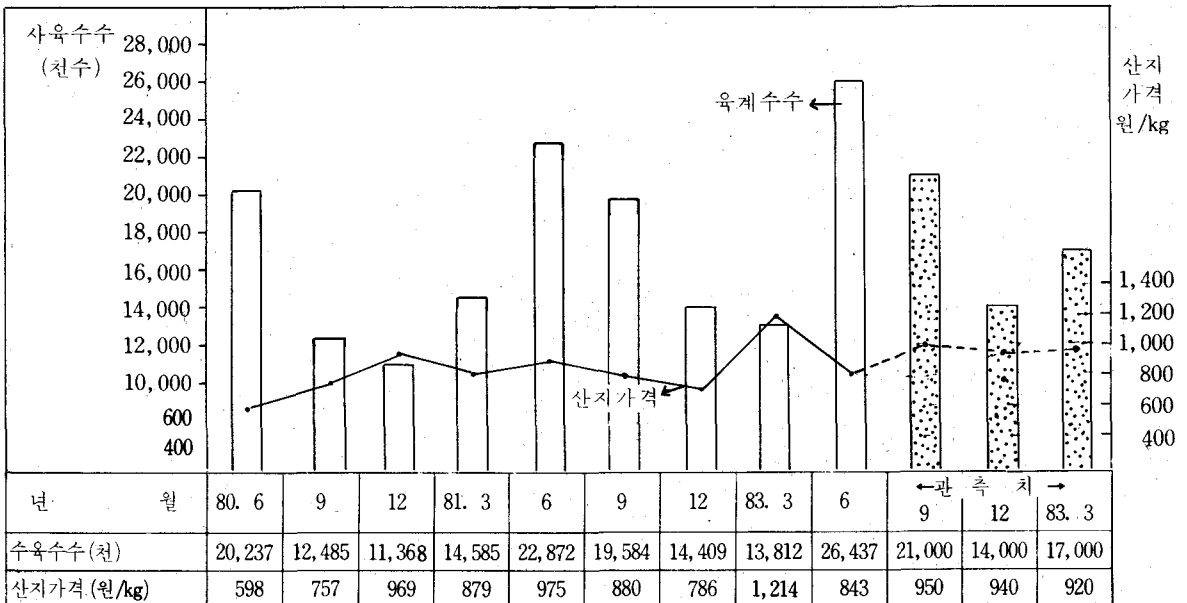
한편 9월 육계마리수가 2천 1백만수로 늘게 됨으로 작년 10월 불황기를 가져온 작년 9월수수보다 다소 많은 마리수가 된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 과다가 예상돼 금년 10월에도 약간 하락세가 되지 않을까 전망되며 그후 내년 3월에는 생산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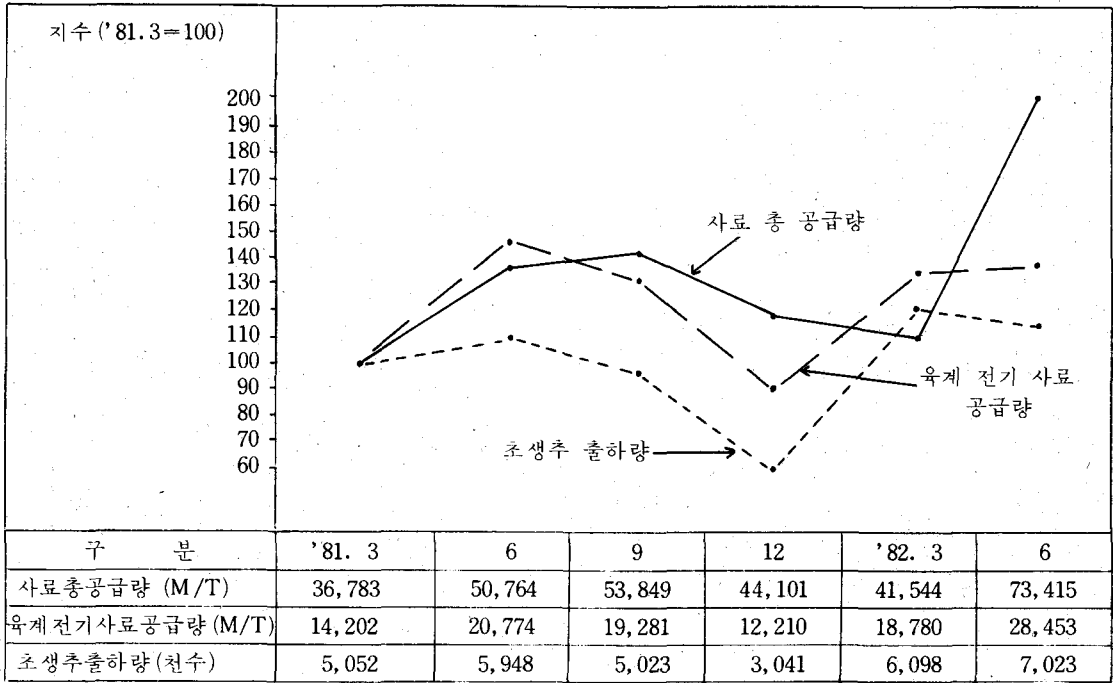
■사육동향

작년 9월이후 12월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육계 사육수수와 가격전망



육계수수 관련요인 변동지수



돼지두수가 금년 3월과 6월에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6월초의 돼지두수를 농수산부는 2,153천두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3월초에 비하여 10.2%가 증가된 수치이다.

사육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 예상수치는 9월에 2,400천두, 12월에 2,500천두, 내년 3월에는 2,600천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년 6월의 모돈수를 보면 '78년 12월의 수치와 같은 345천두에 육박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동안 돼지값의 호황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8년도를 보면 호황의 계속으로 돼지의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78년말 모돈이 345천두였던 것이 불과 6개월후인 '79년 6월에는 모돈이 551천두, 전체 사육두수가 3,178천두까지 증가되어 격심한 양돈불황을 겪었던 바 지금이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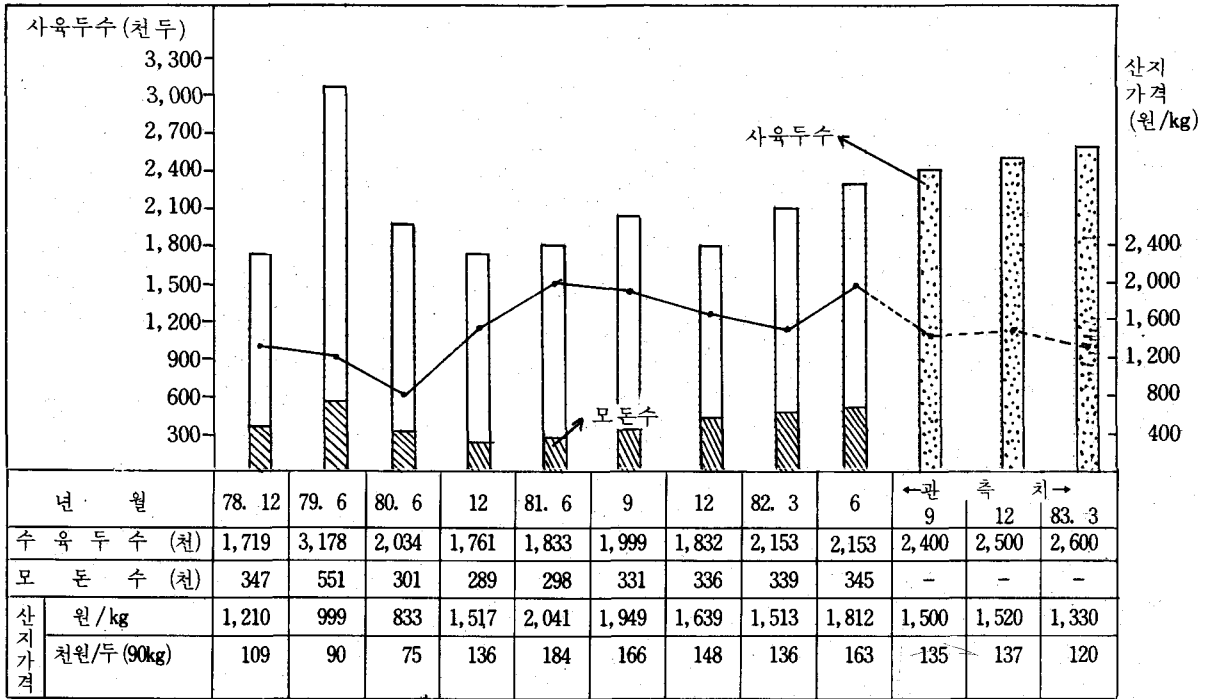
이와같이 사육두수가 증가되리라는 이유에 대해 돼지사육 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동상태를 보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성돈(90kg)가격을 보면 작년 4월이후 금년 여름철인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사육의욕이 고취되어 사육 규모의 확장내지는 비어있는 돈사 등의 기존시설을 이용한 자돈입식 희망자가 부쩍늘어 작년 12월에 40만두이었던 자돈수가 금년 6월에는 54만두로 36%나 늘어났으며 양돈농가와 기업양축가들은 7월 이후에도 계속 늘릴 의향으로 농가 조사결과 나타났다.

축협중앙회에서 6월에 실시한 양돈농가 사육의향조사에 의하면 6월을 기준으로 하여 자돈은 9월에 24%, 12월에는 32% 늘릴 것으로,

최근 사육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배합사료 생산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7월현재 전체양돈 배합사료 생산량은 10만 M/T으로 이

돼지 사육두수와 가격전망



돼지사육의향 조사결과 (단위 : 6월대비%)

구 분	'82.6	7	9	12
젖 먹이 돼지	100	106.3	124.2	131.8
모 돈	100	100.7	101.4	105.4
전 체 두 수	100	105.9	111.6	120.5
전체두수 (천두)	2,153	2,280	2,403	2,594

*277호 양돈농가 조사결과

는 지난 3월에 비해 33%나 늘어났는데 이는 과잉사육기였던 '79년 6월 (3,180천두) 수준의 사료생산량에 육박한 것이며 이중 특히 자돈 사료생산량은 '79년 6월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돼지두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채란업계의 장기불황으로 계사를 돈사로 개조하는 등 양돈업으로 전향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실제 돼지 사육호수도 금년 3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492,000호로

3월보다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두이하의 부업양돈가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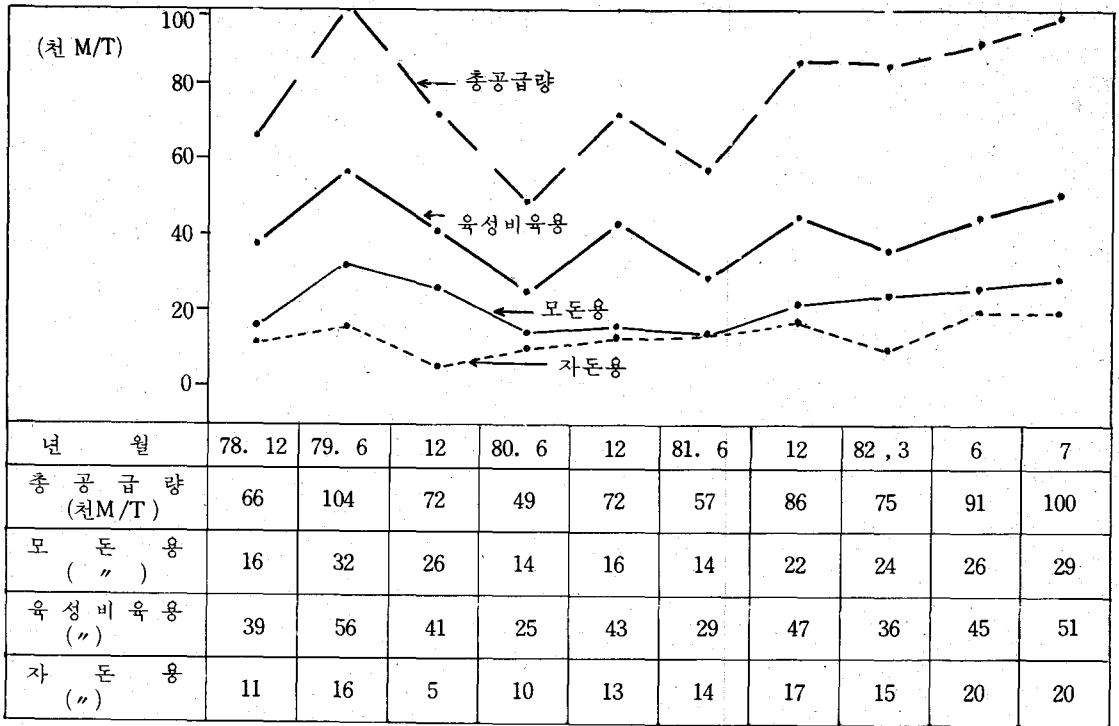
■수급 및 가격동향

하반기 (7~12월)에 출하되는 돼지는 상반기에 있었던 모돈에서 생산된 자돈이 비육출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반기 모돈두수가 금년 초에 336천두에서 금년 6월에는 345천두로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수요량도 8월의 비수요기를 제외하고는 점차 연말까지 증가될 전망이어서 출하되는 공급량의 상대적인 과다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성돈 (90kg)가격도 8월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점차 약한 상승세가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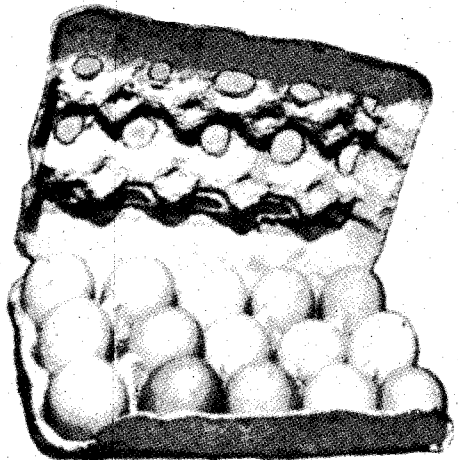
그러나 모돈두수 확보 및 사육두수 증가의향을 보이는 양돈가가 많아지고 신규 양돈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내년초부터는 출하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양돈배합사료 공급상황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
 야간 : 1342 (성남) 3-6239